

광주·전남 여성 의원

46년 만의 첫 전남 여성 지역구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민주당 권향엽

전남에서 46년 만에 첫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당선자가 그 주인공이다. 권 당선자는 1978년 제10대 국회 이후 첫 전남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의이다.

그는 당의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사천(私議)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고, 경선에 의해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꺾고 공천을 따내는 당찬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권향엽 당선자는 "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해 본선 경쟁력을 갖춰 후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며

서 "민주당의 본진이라는 전남에서 46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이 그 증거다"고 지적했다.

권 당선자는 "여성 정치인에게 있어 (저의 당선은) 정치권의 공고한 유리벽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생각한다"며 "국회에 입성하면 후배 여성 정치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당선자는 사천 논란에 반박하며 당에 전략 공천 철회를 요청하고, 서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권 당선자는 "전략 공천을 받았다가 경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시련이었다. 지지자들께서는 왜 굳이 가시발길을 가느냐고 하셨다"며 "오려려 경선 과정을 통해 민



주당과 함께해온 35년의 발자취가 조명받게 됐고 저를 알릴 수 있었다. 경선 과정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저의 비전과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행정관료에서 국회 입성

경제통·예산통·정책통...첫 도전 국회 입성

광주 동남을 민주당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는 호남 출신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재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호남 출신으로는 16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예산 담당)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국회에서 '경제통·예산통·정책통'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남 출신인 안 당선자는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제경직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도전에

맞서 끼니를 거르고 새벽까지 지역을 돌며 선거 운동에 매진해왔다.

그는 당선 확정 직후 "민의를 겸손하게 받들어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예산통인 만큼 경제 정책 기초를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가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BIO(바이오생명), CULTURE(문화 관광)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안 당선인은 "지역 숙안 사업인 제2순환도로 소태·학은IC 진입로 확장, 낙후된 오수처리시



설 현대화, 노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원도심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살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플뿌리 女정치인...4년 와신상담 끝 당선

광주 북구를 민주당 전진숙

제22대 국회에서 광주 유일한 여성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자는 10일 "북구를 잘 알고, 중앙 행정도 잘 알고 있는 제 경험을 토대로 북구 발전과 광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 당선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 도전에 나섰다. 이형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뒤 지역에서 '와신상담'을 해온 덕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고 결국 국회의원의 뺨치를 달게 됐다.

전 당선자는 전남대를 졸업하고 광주 여성성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광주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여

성운동에 힘써왔다. 이어 광주 북구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광주시의원을 지내는 등 플뿌리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전 당선자는 지역경제 침체를 가장 우려하며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학령, 취업 연령대의 젊은층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밀리랜드 일대가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중인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및 첨단 의료 특화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



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거친 경험을 토대로 주민 중심 의정 활동도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

기재부 출신 경제부시장 지낸 예산 전문가

광주 서구갑 민주당 조인철

행정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광주 서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조 당선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중앙정부에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2년 8개월여간 경제부시장을 지내 광주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당선자는 인공지능 광주 시대 개막과 2조원 초반의 국비를 3조원 초반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조 당선자는 부시장 임기 후 중앙부처

로 가지 않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는 최고위원을 지냈지만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해 경선에서 20% 감점 페널티를 받은 송갑석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공천권을 따냈다. 본선에서는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공천을 받은 뒤 선거법정도 논란인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조 당선자는 "광주를 4차 산업 중심의 경제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현재 3조원 수준의 광주 국비를 4조원대로 끌어올리고 인공지능, IT 등 4차 산업과 관련 미래 산업에서 파생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당선자는 이 밖에도 검찰 독재로 망가진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상무 도심 융합특구 완성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광주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해나 기자 khn@

'검찰 개혁 총잡이'에서 국회의원으로

광주 광산갑 민주당 박군택

이른바 '검찰 개혁 총잡이'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광주 광산갑 후보가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박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첫 법무부 검찰 국장, 정책기획단장을 거치며 '검찰 개혁 총잡이'로 불린 만큼 당선이 확정된 후 첫 일선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책기획단장을 지내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그는 지난 2020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민주당 정치단 압대책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 법률 특보를 맡아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변호인으로 합류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언론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고향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각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고검장 출신임에도 고향인 광산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해 법률 상담과 자문 등 지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둑 마음을 다져왔다. 그는 "정권교체와 검찰 개혁에 온 힘을



쏟겠지만,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29년 공직생활 '행정전문가'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당 문금주

문금주 민주당 흥고보성장흥강진 당선자는 29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에 입문,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을 누르고 곧바로 민주당 공천권을 따낸 데 이어 9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까지 확정된 저돌적인 정치 신인으로 꼽힌다.

문 당선자는 보성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29년간 광주시와 행안부, 전남도를 오간 행정 전문가다.

특히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광주·전남 현안에 정통한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문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놓은 최저가 격보장제 입법화,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농·어업인 직업병 제도 마련, 효도 상품 구매 환급제 등은 전국 2위 수준의 농가인구와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인구 비율(26.0%)을 감안해 내놓은 공약들로 평가받는다.

현장과의 소통 능력에다,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어업인 및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꼼꼼한 현안 입법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문 당선자는 "지방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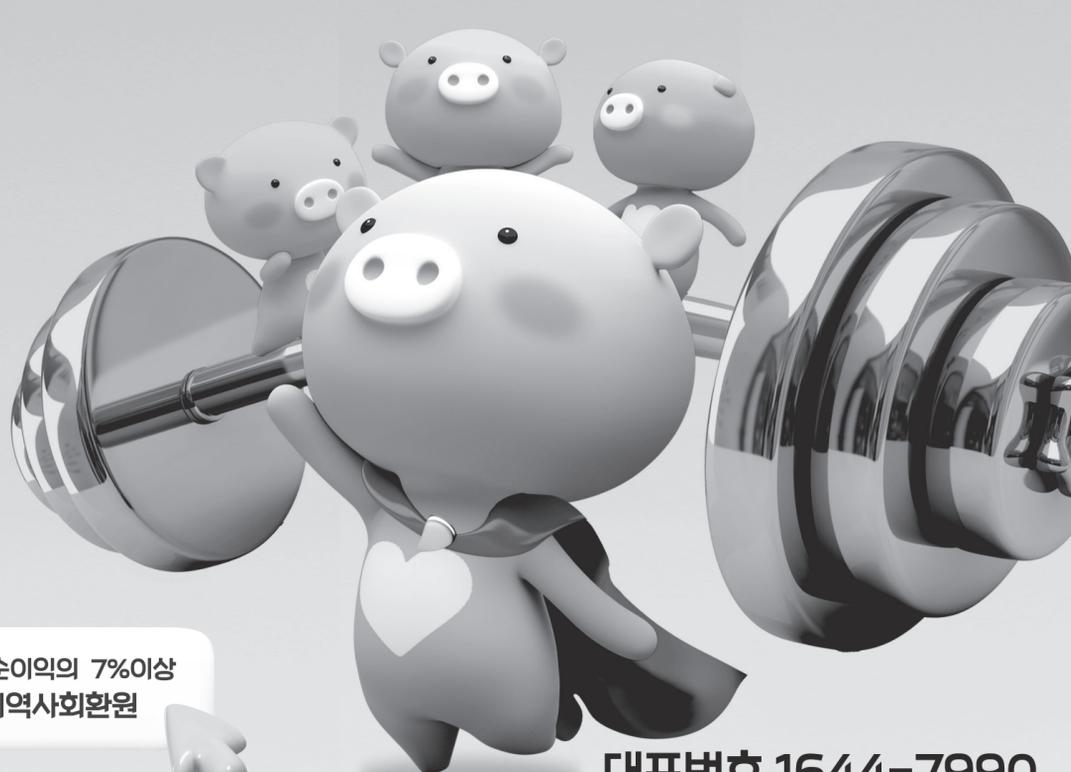


보장, 무안공항 및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